



농업 경쟁력은 우리가 키운다

— 광명농업협동조합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해온 농협은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농업인들의 자부심이자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으로 타 조합의 모범이 되고 있는 광명농업협동조합이 있어 우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 발전과 조합원 복지가 중요한 목표



▲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광명협동농업조합(광명시 하안동)은 농민을 위한 농민본위, 실사 구시, 항재 농장을 운영 방침으로 재산 증식 및 가계의 풍요로움 등 지역 주민의 자립과 기반 마련을

위해 헌신하는 서효석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혼연일체로 총 사업량이 1조원이 넘는 광명시 제1의 금융기관이다.

광명농업협동조합이 특히 빛을 발하는 것은 수익의 적지 않은 부분을 환원사업으로 지역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 및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농업협동조합을 들어서면 직원 모두가 친절하게 맞이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보는 이에게 미소를 짓게 한다. 여기 저기 분주한 직원들의 모습에서 왜 광명 제1의 금융기관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조합원 건강에도 힘써

2002년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광명농업협동조합은 건강생활실천과 건강증진을 기하고자 조합원의 숙원사업이었던 무료 종합검진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낙후된 농촌의 복지증진 및 조합원의 건강한「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CT촬영 및 내시경, 대장 조영술에 대한 중점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까지 전 조합 대상 영농회별로 3년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암 조기검진을 비롯한 다양한 검진을 통해 질병 조기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체조합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매년 확대 실시하여 조합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 2007 조합원 중국연수

건강검진 외에 광명농업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주요사업으로 조합원 해외연수가 있다. 해외연수를 통해서 조합원들은 각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직원이 함께하는 상생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여 조합 홍보는 물론 사업 활성화에 초석을 이룰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조합은 농도상생(農觀相生) 운동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1사일촌) 자매 결연식을 통해 농촌의 이미지 제고 및 사회 공헌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원로 조합원에겐 경로 수당 지급을 하고 있고, 조합원 영농자재 구입 상품권을 차등지급하여 조합원 환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여성복지를 위해서는 주부노래교실과 요가 교실을 운영 실시하고 있는데 관내 주부들과 고객의 건전한 여가



▲ 일사일촌 결연

선용 및 즐거운 삶의 가치를 창조하여 조합의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후원단체 및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 참여도 증진을 비롯한 조합을 홍보하는 지역 기초 조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처럼 광명농업협동조합은 다양한 계층에게 한발 앞선 조합으로써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문화 복지능협을 추구하는 서효석 조합장은 “조합원을 위한 복지증진을 광명 농협이 존속하는 그 날까지 지속하며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 전개, 장수대학운영, 노인정 연료대 지원, 조합원 무료건강검진 및 독감예방접종, 구충제 무료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